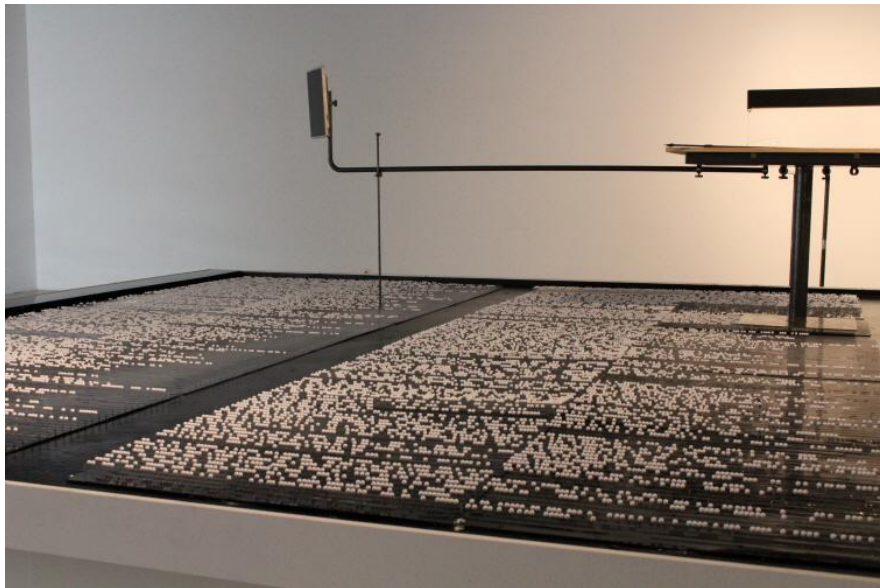


2012 아르코미술관 대표작가전

< 이기봉 - 흐린 방 >

(Kibong Rhee – the Cloudium) 개최





보도자료

(총 12 매, 전시사진 포함)

배포 : 2012년 5월 9일(수)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 고원석 02)760-4611 / 010-5455-6181 / wons@arko.or.kr

전시코디네이터 김아미 02)760-4857 / 010-4435-1228 / ami1228@arko.or.kr

아르코미술관, 2012 대표작가전

<이기봉 - 흐린 방> 개최

한국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중견의 작업세계를 조망해 온 아르코미술관 대표작가전,
작업세계의 다원성에 비해 평면적으로만 알려진
작가 이기봉의 작품세계를 동시대적이고 다층적으로 조명

□ 전시 개요

- 주 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Arts Council Korea, Arko Art Center)
- 전 시 명: 아르코미술관 2012 대표작가전 <이기봉 - 흐린 방>
(Kibong Rhee - the Cloudium)
- 전시기간: 2012. 5. 18(금) ~ 7. 15(일)
- **기자간담회: 2012. 5. 15(화) 오후2시 아르코미술관 1층 스페이스 필룩스**
- 개 막 식: 2012. 5. 17(목) 오후 6시 아르코미술관 1층 Space Feelux
- 부대행사: 개막식 퍼포먼스 - 2012. 5. 17(목) 오후 6시30분 아르코미술관 제2전시실
퍼포머 정영두 (안무가, 두댄스씨어터 대표)
작가와와의 대화 - 2012. 5. 24(목) 오후 5시 아르코미술관 1층 스페이스 필룩스
- 전시장소: 아르코미술관 제 1, 2 전시실
- 전시관람: 오전 11시 - 오후 8시 (매표마감 오후 7:30)
-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공휴일 운영)
- 관 램 료: 무료 ● 문 의: 02-760-4850

- 아르코미술관 홈페이지: www.arkoartcenter.or.kr
-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ArkoArtCenter ● 트위터: [@arkoartcenter](https://twitter.com/arkoartcenter)
- 다운로드(작품 이미지) 웹하드: www.webhard.co.kr (ID: [mac001](#) / PW: [mac001](#))
▷ 내리기전용 ▷ [아르코미술관] 2012.5.17~7.15 이기봉-흐린 방展 ▷ [보도자료] / [작품이미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 아르코미술관은 2012년 5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2012 아르코미술관 대표작가전, 이기봉-흐린 방 (Kibong Rhee- the Cloudium)>을 개최합니다.

□ 아르코미술관 대표작가전

- 아르코미술관이 매년 1명 내외의 중견작가들을 초대하여 작품세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전시
- 한국 현대미술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미술관 차원에서의 조명이 부족했던 작가들을 중심으로 초대
- 1997년부터 이승택, 박현기, 이건용, 김구림, 성능경, 김차섭, 신학철, 민정기, 양주혜, 이반, 김홍주, 황인기 등의 작가들을 초대하여 전시를 개최
- 2012년 대표작가로 정제된 형식미와 특별한 감각을 선보여 온 이기봉을 선정, 개인전 개최. 과거 작품들의 연대기적 배열을 탈피하고 오늘날 작가가 구축하고 있는 미학적 토대를 기초로 하여 신작 중심의 전시 구성을 시도

□ 2012 아르코미술관 대표작가전 선정작가 이기봉

이기봉(1957~)은 1986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젊은 나이로 대상을 수상한 이후 오늘날까지 활발한 작품활동을 지속해왔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동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토탈 미술대전 미술상을 수상 했다. 1988년 인공화랑에서의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헤나 켄트 갤러리(뉴욕), 국제갤러리(서울), 티나킴 갤러리(뉴욕) 등지에서 약 12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또한 1980년대 초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과 해외의 키아스마 미술관(핀란드), ZKM 미술관(독일), 쿤스트버라인 슈투트가르트(독일) 등에서 개최된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해 왔으며 광주비엔날레, 모스크바비엔날레, 아시아퍼시픽 컨템포퍼리아트 트리엔날레, 세비야비엔날레, 싱가포르비엔날레 등 국제미술행사에 수시로 초대되어 작품을 출품해왔다. 이기봉의 작품은 문예진흥원, 국립현대미술관, 호암미술관 등의 국내 기관과 ZKM 미술관(독일), 질 샌더 컬렉션(독일), Neuberger Berman collection(미국) 등 해외 유수의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약력 별첨)

□ 이기봉의 작품세계

작가 이기봉(1957~)은 섬세한 서정성과 독특한 개념성을 동시에 갖추며 한국현대미술계를 대표하는 중견 작가로 인식되어왔다. 1980년대 초 이래 쉬 없는 활동을 지속해 온 이기봉은 몽환적인 분위기의 회화 작품과 감각적이고 압도적인 분위기의 설치 작품을 병행하면서 자신만의 탄탄한 작업세계를 구축해왔다.

이기봉의 작업세계가 갖는 특징 중 하나는 **재료의 감각적 활용**이다. 그는 다양한 재료들을 연구하고 실험하며 자신의 작업세계를 만들어왔다. 그렇게 연구된 재료들은 설치작품들뿐만 아니라 회화작품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재료에 대한 그의 실험과 노력은 그의 작품이 보유하고 있는 세련된 형식미와 감각적인 분위기를 갖추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견 매우 단순한 재료만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 같은 그의 작품들이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고 감각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가 집요하게 연구해 온 재료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나타남과 사라짐'의 반복적 구조**이다. 관객의 눈 앞에 몽환적인 배경이 펼쳐지고, 그 내부의 가변적 요소들이 나타남과 사라짐을 반복하는 것은 그의 설치작품 대부분이 갖는 특징이다. 그러한 대상들은 안개이기도 하고 거품이기도 하며, 그 내부 혹은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기도 하다.

이기봉의 작품들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징 중 하나로 **'물'에 대한 사유**를 언급할 수 있다. 그의 작품에서 물은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며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회화의 배경으로서 물이 등장하기도 하며, 설치작품의 주재료로서 수증기나 안개와도 같이 기체와 액체의 중간단계에서 입자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모두 이기봉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구조'를 재현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는 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흐름에 주목한다. 그가 바라보는 세계는 생성과 소멸의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층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대상이기보다 의식과 감각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층들을 오르내리며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존재하는 것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가 시도해 온 다양한 재료에 대한 실험들은 모두 재료의 물성에 대한 탐구라기보다 재료와 조우하는 자신의 의식이나 신체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타남과 사라짐'의 조형어법은 층위를 유명하는 어떤 느낌들, 그리고 그 층위들의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비존재의 느낌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유명의 과정을 서정적이면서도 감각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바로 '물'이다. 기체와 액체의 중간단계인 수증기, 혹은 거품과 같은 상태로 등장하는 물은 이성이나 감성과 같이 상호이질적인 요소들이 하나의 형태로 혼합되어 존재하는 연속체로서의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이기봉의 작업은 대기에 침투하는 습기로 발생하는 안개가 대상과 시선 사이에서 명멸하며 만들어내는 가시와 비가시의 간격을 구현하고 있다.

□ 2012 아르코미술관 대표작가전 <이기봉 - 흐린 방>(Kibong Rhee - the Cloudium)의 특징

2012년 <아르코미술관 대표작가전: 이기봉 - 흐린 방>은 1980년대부터 감각으로 접속하는 독특한 작업세계를 일관되게 유지해 온 작가 이기봉의 작업세계를 조명하는 전시다. 이번 전시는 그의 미학적 관점을 적절하게 드러낼 6점의 대형 설치 작품과 3점의 대형 회화작품으로 구성되어 기존의 평면 위주의 개인전들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번 <이기봉 - 흐린 방>전은 국내 미술관으로는 최초로 개최하는 이기봉의 개인전이다.

아르코미술관 대표작가전은 한국 미술계를 대표하는 작품성과 미술사적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중견 작가의 작품세계를 재조명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이기봉의 작업세계가 가진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감각체계와 재료에 대한 실험성, 공간과 결합되어 창출되는 특별한 분위기 등을 총체적으로 조명한다. <흐린 방>展은 초창기의 작품들부터 시작하여 근작에 이르기까지 작업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연대기적 기술을 택하기 보다, 전시가 개최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작가가 축적해 온 미학적 세계를 가장 '동시대적'인 형식을 통해 보여주는 구성을 택했다. 기존 중견작가 회고전의 전형성을 탈피하고자 하는 이번 전시에서 전체 전시장 면적을 거의 차지하는 대형 설치작품부터 최근 회화작품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작품들은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로 제작된 신작들이다. 그 동안 작가가 획득한 미학적 역량은 이 대형 신작들을 중심으로 모든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 <이기봉전 - 흐린 방> 작품구성

제 1 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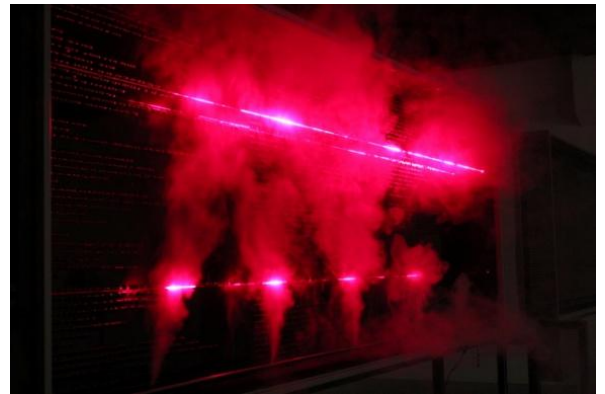


End of the End, aluminum, steel, water pump, blue lamp, acryl box, water and handmade book, 152.5 x 65.2 x 200 cm, 2008

몽환적인 느낌의 파란색으로 가득한 수족관 내부, 내용을 알 수 없는 두 권의 책이 내부에 가득한 액체의 무규칙의 흐름에 기대어 비정형의 운동을 지속한다. 두 권의 책 속에 담겨 있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하나의 생물체가 되어 기묘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기봉의 작품들 중 다양한 국제 미술행사로부터 출품요청을 받은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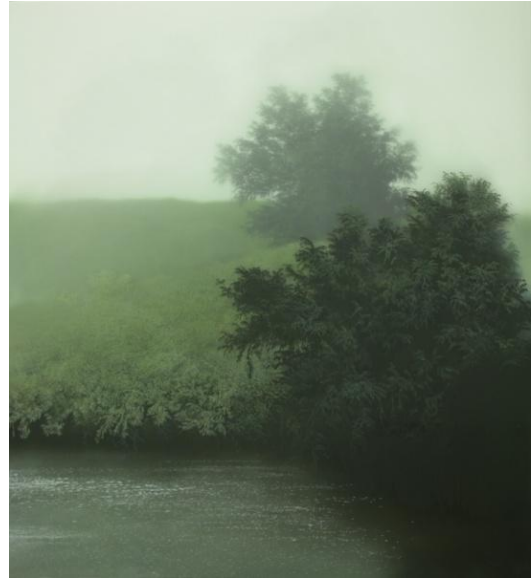


Sense Machine - 수직의 지속, mixed media, 330x237x60cm, 2012 (좌)



Sense Machine - 수평의 지속, mixed media, 330x237x60cm, 2012 (우)

1전시장 공간을 시각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2점의 작품. '감각 기계'라는 의미의 제목에서 풍기듯이 작품은 분명히 존재하는 무엇이지만 보는 이의 감각적 인지에 따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한 작가의 사유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품 내부에서 분출되는 수증기에 따라 강렬한 색감의 레이저 광선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지속되기 위하여 - 망각, acrylic and mixed media on canvas, 270x200cm, 2012 (좌)

지속되기 위하여 - 기억, acrylic and mixed media on canvas, 270x200cm, 2012 (우)



이기봉의 회화는 섬세함과 서정성, 평면의 한계를 초월한 듯한 깊이감, 시간과 공간을 가늠할 수 없는 몽환적인 느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한 형식미의 힘에 더하여 작가는 기억과 망각, 감각적 인지와 의식적 인지, 신체 혹은 두뇌의 내부에 투영되어 있는 다양한 의식의 발현체로서의 외부 사물에 관한 다양한 사유를 발군의 회화 감각으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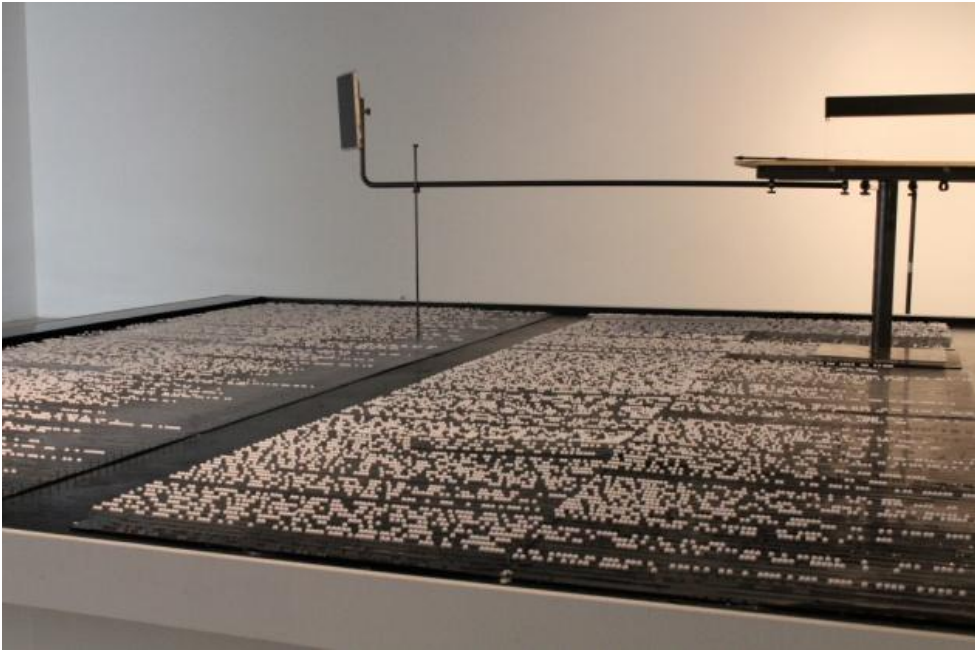
지속되기 위하여 - 허물, acrylic and mixed media on canvas, 280x180cm, 2012



There is No Place - Shallow Cuts, glass, fog machine, artificial leaves, wood, steel, sand, motor, timer, size variable,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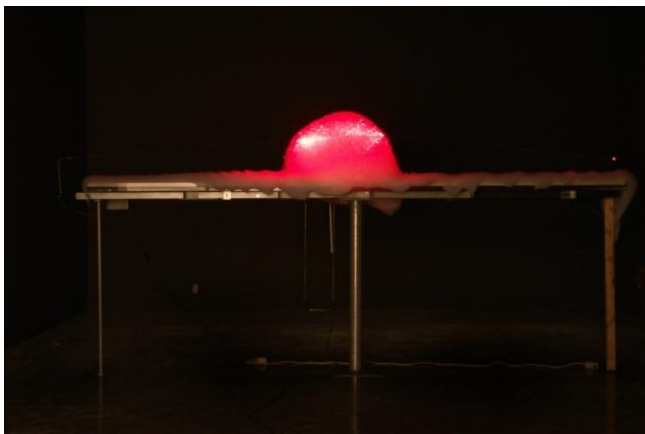
2008년 제작된 작품으로 관객을 일종의 무대 앞으로 위치시키는 대형 설치 작품이다. 가설무대와 같은 공간이 만들어지나 유리막으로 인해 관객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과는 분명한 거리감이 형성되어 있다. 수증기가 서서히 공간을 채우면서 앙상한 나무의 형태는 사라졌다가 다시 수증기가 천천히 가라앉으며 나무의 형태가 보이기를 반복한다. 이번 전시를 위해 이전 전시에서 보여졌던 스케일보다 대폭 확장하여 아르코미술관 1층 전시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간에 걸쳐 설치된 이번 작품은 관객의 신체를 압도하는 규모와 공간 설정으로 인해 관객의 신체 전체를 감싸는 체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 2 전시장



Cloudium, mixed media, 9000x488x50cm, 2012

이번 전시를 대표하는 대형 설치작품. 아르코미술관 2층 전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작품은 이기봉이 가진 작가적 사유체계를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가로 9미터, 세로 5미터에 달하는 규모의 대형 판넬 위에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들이 무한대의 공간처럼 펼쳐져 있고 그 위를 거품들이 서서히 덮어나갔다가 다시 토해내는 과정을 반복한다. 작품 위에는 인간의 지적 생산을 상징하는 책상이 있고 그 책상 양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에는 작품이 표현하는 감각적 느낌을 안무가인 정영두가 신체를 통해 표현한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Romantic Soma, mixed media, 100x370x65cm, 2012

2 전시장 오른쪽 별도의 공간에 자리잡고 있는 이 작품은 액체와 기체의 중간형태인 거품들이 쌓여가면서 거대한 형태의 구조물로 축조되는 과정과, 그 위를 투과하는 두 개의 레이저 빔이 만들어내는 몽환적이면서도 자극적인 색감을 구현하고 있다.

*Performance <Cloudium> 2012. 5. 17(목) 오후 6:30 퍼포머 정영두(안무가, 두댄스씨어터 대표)



안무가 정영두가 진행하는 퍼포먼스 <Cloudium>은 이기봉의 대형 설치작품 'Cloudium'의 일부이기도 하고 전체 전시인 '흐린 방'(the Cloudium)의 상징적인 일부이기도 하다. 이기봉은 철저히 시각예술의 형식을 고수해왔던 작가로서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감행한다. 퍼포먼스의 핵심구조는 이기봉의 작품들이 갖고 있는 복합적 층위구조를 신체의 언어로 감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에 있다. 작가는 이를 위해 연기가 결합될 수 있는 신작을 창작하여 배치하였고 연기의 전체적인 개념과 맥락, 그리고 세부적인 요소 등을 장치했다. 한국무용계를 대표하는 안무가 정영두는 작가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작가와의 소통에 할애했다. 이번 퍼포먼스에서 정영두는 스스로 '이기봉의 오브제'역을 자처하며 작가의 작업세계의 신체적 재현에 집중했다. 그는 평소와는 다른 배경에서 보이지 않는 모종의 세계를 재현하기 위한 특별한 안무와 연기를 시도한다. 그의 퍼포먼스는 존재가 소멸하기 직전 감각과 밀도가 극점에 다다른 흐름의 특별한 과정을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신체의 언어로 보여줄 것이다.

□ 작가이력

이기봉 (1957~)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
1981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주요 개인전

- 2012 아르코미술관 대표작가전 <흐린 방>
2011 티나킴갤러리, 뉴욕
2008 국제갤러리, 서울
2003 국제 갤러리, 서울
2002 국제 갤러리, 서울
1997 국제 갤러리, 서울
1995 예화랑, 서울
1994 갤러리 서화, 서울
1993 헤나 켄트 갤러리, 뉴욕
1992 미건 갤러리, 갤러리 사계, 서울
1991 미건 갤러리, 서울
1988 인공 갤러리, 서울

주요 단체전

- 2012 Mediations Biennale, 폴란드 (예정)
<코리안 페인팅 나우>, 국립대만미술관, 대만
2011 모스크바 비엔날레, 모스크바
2010 <Screaming From The Mountain>, 쇠를란데트 쿤스트뮤지엄, 노르웨이
<Sensorium>, 고려대학교 박물관, 서울
<숲의 향기, 숲의 소리>,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서울,
<And_ writers, 2010> 난징 비엔날레, 난징, 중국
<Mirror of continuous change>, 태광그룹, 서울,
<부산 비엔날레>, 부산, 한국
2009 <Reflection>, 도지마 리버 포럼, 오사카, 일본
<아시아 퍼시픽 컨템포러리 아트 트리엔날레>, 퀸스랜드
<큐브 비엔날레 2009>, 린츠, 오스트리아
모던아트 갤러리, 브리즈번, 퀸스랜드, 호주
2008 <현대아시아미술전>, 키아스마 미술관, 헬싱키
<세비아 비엔날레>, 세비아 & 그라나다
<아시아-재해석>, 세계 문화관, 베를린 & 월설 뉴아트 갤러리, 월설
<Emocaoartificial>, 상 파울로
<싱가포르 비엔날레>, 싱가포르
<키아프 특별전>, 한국국제아트페어, 서울
2007 <Thermocline of Art - New Asian Waves>, ZKM, 칼스루에

- 2006 <시몬의 친구들>, 시몬갤러리, 서울
- 2005 <시몬의 친구들>, 시몬갤러리, 서울
- <The Blue>, 가나갤러리, 서울
- <회화의 복귀>, 분도갤러리, 대구
- <Before & Now>, 시몬갤러리, 서울
- <Cool & Warm>, 성곡미술관, 서울
- <전통과 현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서울
- 2004 <이미지 유토피아>, 한전프라자갤러리, 서울
- <시몬의 친구들>, 시몬갤러리, 서울
- <VENTD'EST>, Chapelle de la Sorbonne, 파리
- 2003 <2003 서울 북 아트-아트 북 아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02 <케미컬아트전>, 사간갤러리, 서울
- <Luna Pak>, 쿤스트베레인, 슈투트가르트
- 2000~2001 <분당 요한성당 벽화 설치>, 분당
- 2001 <Luna Park>, 쿤스트베레인, 슈투트가르트
- 1999 <Dialogue>, 토탈미술관, 서울
- <Sweet Lips>, 카이스갤러리, 서울
- 1998 <4+1Korean Artists>, Hofstra Museum, 뉴욕
- <Spiritual-scape>, Generous Miracle Gallery, 뉴욕
- <Chorus and Distortion>, Gallery Untitled, 뉴욕
- <1990년대 한국현대 미술의 쟁점 : 매체와 평면>, 성곡미술관, 서울
- <Project 8>, 토탈미술관, 서울
- <PICAF98>,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 <시몬의 친구들>, 시몬갤러리, 서울
- <Logos & Pathos전>, 관훈갤러리, 서울
- 1997 <광주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본전시장, 광주
- <레알리떼서울전>, 공평아트센터, 서울
- 1996 <Ana-chrome>, 서화갤러리, 서울
- <판화미술제>, 예술의 전당, 서울
- <Art at Home>, 서미갤러리, 서울
- 1995 <토탈수상작가전>, 토탈미술관, 서울
- <Logos & Pathos전>, 관훈미술관, 서울
- <한국현대회화50년 조망전>, 서울신문사, 서울
- <한국현대미술전>, 중국 북경 중국미술관, 북경
- <서울80>, 가인갤러리, 서울
- 1994 <Logos & Pathos전>, 관훈미술관, 서울
- Open Studio Display
- <예화랑추천작가전>, 예화랑, 서울
- <서울'80전>, 신라화랑, 대구
- <내일への 제안-차세대시각전>, 예술의 전당, 서울
- 1993 <5인의 형상 언어전>, 빈켈화랑, 서울
- <에폴드서울전>, 갤러리포름, 경기도
- <서울'80전>, 갤러리서화, 서울

- <토탈미술대상전>, 토탈미술관, 서울
 <레알리떼서울전>, 갤러리포름, 경기도
 <Logos & Pathos전>, 관훈미술관, 서울
 1992 <한국현대회화표현>, 형상, 로스앤젤레스
 <화랑미술제>, 예술의 전당, 서울
 <인간 그 얼굴과 역사, 현대미술동향30대 작가전>, 미술회관, 서울
 <의식, 소리, 반향>, 갤러리 사계, 서울
 <에폴드서울>, 관훈갤러리, 서울
 <한국현대미술21전>, 갤러리21, 서울
 1991 <울산갤러리 개관전>, 울산갤러리, 울산
 <현대미술4인전>, 갤러리포커스, 서울
 <앵포르멜이후전>, 조선일보미술관, 두손갤러리, 서울
 <New Image New Age>, 미건갤러리, 서울
 <한국현대회화전>, Foundation Vasarely, 프랑스
 1990 <한국미술-오늘의 상황전>, 예술의 전당 개관기념전, 서울
 <레알리떼서울전>, 서미갤러리, 서울
 <Logos & Pathos전>, 관훈미술관, 서울
 <한국현대미술작가초대전>, 롯데미술관, 서울
 <대한민국회화전>, 호암갤러리, 서울
 <개관기념전>, 최갤러리 / 개관기념전, 제3갤러리, 서울
 <한국현대미술90년대작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88 <이기봉, 최정화전 (2. 26- 3.3)>, 바탕골미술관, 서울
 <Logos & Pathos>, 관훈갤러리, 서울
 <3月の 서울전>, 수화랑, 서울
 1987 <오늘의 작가전>, 관훈미술관, 서울
 <레알리떼서울전>, 아르코스모, 서울
 <미술대전 수상작가 초대전>, 미술회관, 서울
 1986 <서울현대미술제>, 미술회관, 서울
 <86현대회화동향전>, 제3갤러리, 서울
 <79인의 서울전>, 관훈미술관, 서울
 <로고스& 파토스전>, 관훈미술관, 서울
 <현대조형전>, 두손갤러리, 서울
 <미술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서울
 1985 <1985 전>, 제3미술관, 서울
 <젊은작가 16인전>, 관훈미술관, 서울
 1984 <82현대회화전>, 두손갤러리, 경인미술관, 서울
 1983 <현대판화 5인작가전>, 윤갤러리, 서울
 <양데팡당전>, 국립현대 미술관, 과천